

강줄기 따라 흘러온 인류의 역사와 문명

리버

로런스 C. 스미스 지음, 추천영 옮김

범박하게 말한다면 강(river)의 임무는 모든 것을 아래로 흘러보내는 것이다. 강의 최종 목적지는 호수와 바다다. 그곳에 도달한 강은 퇴적물을 쏟아 놓고 소멸의 운명을 맞는다. 일테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소멸은 마치 영혼처럼 증발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비가 되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런 뒤 침식, 평탄화, 운반, 퇴적 작용을 반복했다"



인류역사에서 강은 문명을 태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미국 허드슨강. <시공사 제공>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강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강의 저력은 그 이상의 것이다. 침식과 운반, 퇴적은 언급한대로 자연적인 현상일 뿐 강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힘은 바로 문명을 태동시킨다는 데 있다.

오랜 시간 흘러온 강을 조명해 '리버'는 매력적인 책이다. 저자는 브라운대학교 지구, 환경 및 행성과학학부 교수인 로런스 C. 스미스다. 그는 인류 문명을 강과 연계해 다채로우면서도 역동적으로 풀어낸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미 다이아몬드는 "강을 정교하게 조명해, 아주 매력적인 책"이라고 평했으며 '장벽의 문명사'의 저자 데이비드 프라이는 "30억 년 넘게 지구 형태를 형성해온 힘! 강과 강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간 모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충격적이며 때로는 으스스하다"고 밝혔다.

저자에 따르면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건설 사업으로 솟아오른 산맥은 모래가 될 것이다. 잔해는 하구, 삼각주, 앞바다의 대륙붕에 흩어진다. "지진, 산사태,

맹렬한 홍수 같은 자연현상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증거"로 두 세력이 펼치는 전투로 세계의 표면이 결정된다.

역사 이래로 인류는 강을 다양한 방식, 다시 말해 강이 제공하는 이점을 환경에 맞게 활용했다. 자연자본, 접근성, 영토, 복리, 권력 과시 수단이 그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나일강은 홍수를 일으켜 토사를 제공했다. 오늘날 나일강은 수력발전, 상수도, 카이로 시내를 관통하는 강변의 부동산을 공급했다. 미국 북동부 허드슨강은 뉴욕에 수변공원을 제공한 점이 그것이다. 각각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또한 인류 최초의 역사는 모두 큰 강을 연해서 탄생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나일강, 황하

강을 토대로 인류의 찬란한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

강을 모티브로 문화 예술도 꽃을 피웠다. 종교 외에도 문학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 장르가 강을 주제로 펼쳐졌다. 빈센트 반 고흐와 피에르 르누아르의 그림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글은 상당수 강에서 영감을 얻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도 강을 매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오늘날 강은 퇴적물을 바다로 실어 나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강에 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강이 인위적으로 유속을 낮춘 도시를 지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간과한다. 그래도 강이 이긴다. 강이 인간보다 더 오래오래 지구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공사·2만3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돌을 쥐려는 사람에게**=김석영의 시를 읽는 조각석 문학평론가는 '거부감 없이 읽는 이를 시작 실제 속으로 몰입하게 만든 뒤 자연스럽게 사유의 끝에 안착시킨다'고 말했다. 허연 시인은 읽는 이의 호흡에 시를 적절히 조율시켜 밀물과 썰물, 맥박처럼 리듬이 살아있다고 평했다. 제41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시집으로 김석영은 시 속에서 화두를 던진 뒤 스스로 해결해내는 매력적인 완결성을 보인다. <민음사·1만2000원>



▲**80세의 벽**='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80세의 벽을 넘지 못한다. 책은 이렇게 말한다. 과도한 강박과 욕심은 무리한 절제라는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든다고. 노인정신의학 전문가인 저자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시기를 맞게 되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선 노화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중히 대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한스미디어·1만5800원>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디지털시대는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는 장이 되기도, 간과할 수 없는 위기가 되기도 한다. 책은 디지털로 보는 사람이란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질문한다.

동시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얘기한다. <이다북스·1만5000원>

▲**피터버핏의 12가지 성공 원칙**=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의 아들 피터 버핏이 아버지 아래에서 배운 '인생 성공의 비법'을 담았다. 음악가의 삶을 살며 아버지의 돈과 명예로 부를 얻는 직업이 아닌 본인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예술가의 삶을 선택한 워런 버핏의 막내가 독자들에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매경출판·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눈이 내리면**=흐린 도시에 나뭇잎을 날리는 눈송이 하나, 눈송이를 발견한 아이는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지만 어른들은 시큰둥할 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예상대로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한다. 어른들은 눈에 뒤덮혀 도망치듯 사라지고 아이와 강아지는 모두가 사라진 텅 빈 도시의 새하얀 절경을 온 몸으로 만끽한다. <시공주니어·1만3000원>

▲**진짜 친구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우정에 관한 진실부터 갈등과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 친구에게 내 생각 똑똑히 전달하는 방법까지... 인간관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10대가 사회성을 기르고 능숙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새학기를 앞둔거나 새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어린이, 친구와의 문제로 고민인 어린이라면. <픽·1만4800원>

▲**악수**=함민복 시인의 시에 이철형 화가의 그림이 더해진 시와 그림이 모여 만들어진 '시 그림책'. 이 그림책의 시에는 동화 같은 발견의 통찰이 담겨있다. 함민

5년 이내 90% 퇴직...MZ세대는 왜 조직을 떠나는가

조용한 퇴사

이호건 지음

'대퇴사(The Great Resignation)'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매달 400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문제는 코로나 거러두기가 끝난 상황에서도 떠나간 이들이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2022년 10월 현재 미국에는 10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비어 있다.



국내에서도 '대퇴사'와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로 많은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업 플랫폼인 '잡코리아'가 20~30대 남녀 직장인 343명을 대상으로 '첫 이직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MZ세대 10

명 중 3명 이상이 입사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사 1년차에 퇴사한 사람의 비율은 37.5%, 2년차 27%, 3년차 17.8%, 4년차 5.4%, 5년차 4.6% 순으로, MZ세대 입사자 가운데 2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퇴사하고 5년 이내에 90% 이상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작가와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인 이호건의 '조용한 퇴사-MZ세대가 조직을 버리는 이유'는 'MZ세대가 비밀 첩보작전 하듯 조직을 떠나는 현상'을 심도있게 짚어본 책이다.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MZ세대가 조직을 떠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1장 '현상:도대체 MZ 세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MZ 세대의 가치관에 대해 다룬다.

2장 '원인:왜 MZ세대는 그렇게 행동하는가?'에서는 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15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현재 회사는 종차역이 아니라 정거장일 뿐', '이름값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다', '허드렛일이나 하려고 입

사한 것이 아니다',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픔은 못 참는다', '실력만 길러두면 갈 곳은 넘쳐 난다', '불의, 불공정, 불이익은 절대 참을 수 없다' 등 다양한 이유를 소개한다.

3장 '대책:MZ세대와 더불어 걸어가는 법'에서는 MZ세대가 조직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과 더불어 퇴사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업무와 일상의 균형을 찾는 '워라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과 삶을 융합(blending)하는 '워라블(work-life blending)'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 어떤 경우라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저자는 조직을 떠나는 사람을 잘 보내주는 것도 남아 있는 직원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퇴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월요일의 꿈·1만7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